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평화를
심다
세계를
꿀다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찾아가서 듣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MAB 활동 이야기

기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MAB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찾아가서 듣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MAB 활동 이야기

기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MAB한국위원회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함께한 유네스코

1950년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은 유엔과 유네스코의 물질·인적 지원을 토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올해로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 국제교류 창구로서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과학 이슈를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MAB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공동으로 유네스코 MAB가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MAB 프로그램 도입 때부터 현재까지 참여하였던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MAB 역사를 담당해 온 분들과 인터뷰하여, 그분들의 활동이 개인의 기억을 넘어 그간의 활동 성과를 재정리하고 향후 유네스코 MAB 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김귀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청일 MAB 국제조정이사회(MAB-ICC) 전(前) 의장, 조도순 MAB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의 대한민국 도입, 비무장지대 생

물권보전지역 지정 시도,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 과정 등에 관해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책으로나마 MAB의 역사를 후손이 이해하는 데 일조하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귀한 자료가 사라지기 전 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MAB한국위원회 위원장
조 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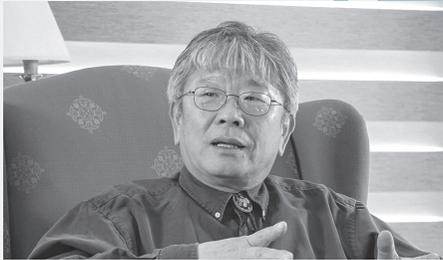
목 차

6



김귀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MAB한국위원회 부위원장

12



김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MAB한국위원회 위원

23



최청일 전 MAB 국제조정이사회 위원장

35



조도순 MAB한국위원회 위원장

김귀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MAB한국위원회 부위원장



MAB한국위원회의 창립 멤버

MAB한국위원회는 1980년 유네스코 정부간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의 국내 도입 및 빠른 정착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초창기 멤버로 MAB한국위원회 설립 이전인 1979년에도 연구 사업과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설립 멤버로는 한상복 교수님, 이민재 교수님, 오계철 교수님, 김준호 교수님 등이 계신데, 한상복 교수님만 살아계시고 다른 분은 모두 고인이 되었습니다.

설악산과 제주도, 우리나라의 첫번째와 두번째 생물권보전지역

MAB한국위원회 설립 후 설악산과 한라산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악산이 먼저 지정되긴 했는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 지역주민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지정되면 첫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수익이 증대되고, 둘째, 주민이 직접 생태해설사(Eco-Guide)로 활동할 수 있어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셋째,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나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이 현재의 제주도 국제화에 일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 당시 지리적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여건도 있었겠지만, 설악산도 지정 당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했다라면 현재 설악산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제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에 중추적 역할, 북한과 협력의 계기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네트워크 설립을 주도한 곳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였으나 운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서울대 총장과 환경처 장관을 지내신 권이혁 교수님입니다. 당시 저는 환경처 중앙정책자문위원이었는데, 환경처 장관으로 재직하실 당시 자문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개별적으로 꼭 해주신 분입니다. 조찬회 때 장관님께 건의를 드렸고, 제가 언급한 내용이 반영되어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운영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장관님은 여의치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드리라고 지시하셨고, 많지는 않지만 운영 예산 확보에 성공하였다는 답변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 운영 예산이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권이혁 장관님의 적극적 협조로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가 설립된 것입니다.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설립이 더욱 뜻깊었던 것은 북한의 참여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그리 자유롭지 않았을 당시 이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북한 유네스코 민족위원회와 현장에서 두루미 복원사업과 같은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UN연합사의 도움으로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수 있었고 철원 안쪽까지 답사가 가능했는데, 이때도 남북한 생태환경 조사를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경제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사업까지 국제적 지원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떤 제안이었냐 하면, 모니터링할 공동지역을 정해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해서 종합보고서를 출판하되 연구비는 대한민국에서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UNDP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로 인해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좋은 사례입니다.

환경 협력에 기여하는 MAB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분쟁지역, 특히 중동과 같은 곳이 해당되는데, 환경협력을 통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맥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의 변화

기본적으로 핵심구역·완충구역·협력구역의 구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생태적 연결성이 강조되면서 생물권보전지역과 다른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회랑(Corridor)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념이 도시로 적용되면서 도시 생태계의 생물학적 회랑이 활발히 적용되었습니다. 이 모델이 된 것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을 볼 때 제도권적인 접근과 비제도권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MAB한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해보자면 국립공원 용도구역이 제도권적인 접근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법에 의한 제도적인 접근은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도입 시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MAB 도시생태프로그램 참여

저는 운이 좋았던 경우로,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11년간 도시생태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열 권의 영문 보고서와 한 권의 영문 저서를 남겼습니다. 우선 도시생태를 말하기 전에 도시생태프로그램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간생태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학에도 환경생태학, 보전생태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인간생태학을 지향했습니다. 인간생태학은 문화인류학의 접근입니다. MAB의 구성을 보면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했습니다. 다차원적 학문으로 프로그램에 접근했는데 저는 도시생태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제가 열한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도시 에너지 흐름과 보전이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완충구역·협력구역 개념을 직접 현장에 도입한 것이 유네스코 건물에 있는 옥상정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모니터링 결과를 뉴욕 과학원에서 발표해서 참석자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MAB 프로그램을 도시 녹지 체계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도시생물권 조성 사례는 유네스코 옥상을 포함하여 서울공고 생태연못, 분당 경동에너지 비오토프 세 군데였습니다. 이것은 KBS TV '환경스페셜'에서 다뤄지고 CNN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관심이 컸던 사업입니다. 지금 '그린딜', '디지털딜'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딜은 그린딜 실행 및 완성을 위한 조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도시생태에서 더 나아가 도시자연공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악산이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에도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남 개발을 하면서 남겨놓은 지역이 청담근린공원과 봉은사 주변 녹지인데 예전에는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말하자면 숲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강남구에서 정자를 짓고 시멘트로 포장하면서 다람쥐나 청설모가 사라졌고 새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들고양이가 들어오면

서 쥐마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연이 아닌 녹지가 된 것입니다. 빈 공간에 사철나무, 향나무 등과 같은 나무를 심어서 생태적 오염(Ecological Pollution)을 일으켰습니다. 자연이 아닌 인간 중심의 근린공원으로 모두 바뀌어 가고 있는데 결국 자연을 못 보는 인간이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도시생물권 관리 원칙에 따라 인접 공원, 녹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7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가도록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DMZ를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DMZ라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DMZ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만나서 합의하고 건물을 지어서 파괴할 수 있는 개발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화·안보·생태가 공존하고 자연자산을 보전하여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만의 자산이 아닌 지구촌 모두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 복합 유산의 다핵이론 관리 모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DMZ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통해 남북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동북아 생태축은 물론, 유라시아 생태축의 구축을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전개를 기대해봅니다.

김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MAB한국위원회 위원



MAB에 참여하게 된 계기

기록을 보니 1990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6년을 MAB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MAB한국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저를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MAB의 생물권보전지역에는 여러 구성요소가 존재하는데 이 구성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물이고 더 나아가 생물종까지 알아야 합니다. 생물종을 다루는 학문이 계통분류학이고 그 당시 계통분류학자였던 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MAB한국위원회 초창기부터 활동하셨던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동물학과 김훈수 교수님이 동물계통분류학자이신데 정년퇴임하시면서 1989년 3월경에 후임으로 제가 임용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로 부임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후에 MAB한국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 당시엔 생물학 분야 중에서도 분자생물학이나 생명공학에만 관심이 많았고 야외에서 생물을 다루는 계통분류학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학교마다 계통분류학 교수들은 내보내고 분자생물학 하는 교수들을 대신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분자생물학 기법을 분류학에 적용하여 1989년에 한국에 분자 계통분류학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운 좋게도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게 됐고, 항간에서는 제가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지 않았으면 '전국의 분류학뿐만 아니라 분류학 교수님들도 모두 사라졌을 거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MAB한국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저를 추천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MAB한국위원회 시작을 함께 한 김훈수 교수님

제 부친이신 김훈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또 제 조부님도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제국대학 의예과를 나오시고 함흥에서 의사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학업을 위해 서울에 계셨던 김훈수 교수님이 조부님 뵈러 함흥에 가실 때마다 항상 바다에 나가곤 하셨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동물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예과를 졸업하시고, 그 당시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생물학과에 다시 입학하셨습니다. 서울대 생물학과 3회 졸업생이 딱 두 분 계셨는데 그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김훈수 교수님은 우리나라 동물계통분류학의 토대를 만드신 분입니다. 졸업 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셔서, 곤충을 전공하신 이창언 교수님을 가르치셨고 6·25전쟁이 끝나고 이화여대 사범대학 생물학과에 부임하셔서 해양무척추 척삭동물을 전공하신 노분조 교수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이공대 생물학과로 가셔서 연체동물을 전공하신 최병래 교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1967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물학과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 분야인 계통분류학의 전공자였던 김훈수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1988년 정년까지 20여 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를 가르치셨는데, 김훈수 교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또 제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분들이 현재 동물계통분류학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훈수 교수님은 자연보호 활동의 선두에 서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 자연보존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깃벌의 중요성을 처음 대중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운동에도 앞장서셨는데, MAB 활동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여러 학술조사의 단장으로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수 교수님은 학자로서 굉장히 순수하시고 우직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그 당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문적 유행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교수님은 학문적 세파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전공이었던 해양갑각류 분류학에만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후학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가장 크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들에게 잔소리한다든가 무언가를 강요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약 32년간 32명의 박사와 29명의 석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가 제자들에 해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님께 배운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라는 가르침대로, 때가 되면 제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될 것이라는 제자들에 대한 믿음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님께 받은 가르침입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한 한국의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현재 8곳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이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부터 시작해서 20년 뒤에 제주도가 되고, 지금은 총 여덟 개라고 들었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기본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학술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각 지역 생물상을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경비와 생물권 구성요소를 조사할 생물종류별 전문 분류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전에는 그 경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설악산은 워낙 명산이다 보니까 80년대 이전에도 자연보호협회나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등을 통해 나름의 학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 기본적인 자료가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도 많고, MAB가 ‘Man and the Biosphere’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 대한 것도 많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그런 기록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20년이 흐른 후에 제주도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야외에서 활동하는 계통분류학이나 생태학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1990년대 제가 서울대에 온 이후부터 제주도에 대한 학술조사가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육상식물뿐만 아니라 해양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아열대성 해양무척추동물들이 난류를 타고 계속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심 70~80m까지 들어가는 제자들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통해 해양무척추동물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자료들이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축적됐습니다. 그래서 MAB 회의에서 제주도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여덟 군데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이 커졌고, 그에 따른 국제영향력도 점점 커졌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생물다양성을 다룰 수 있는 공공기관들도 생겼습니다. 2007년에 국립생물자원관, 2015년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상주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이 만들어졌고, 영산강·호남권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곧 개관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생물권보전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 여덟 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탄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유네스코 MAB 활동

국민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생물다양성은 사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Life On Earth입니다. 1992년 4월에 유네스코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제목이 「지구환경문제와 새로운 국제질서」 였을 것입니다. 그중 저도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국내현황」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첫 심포지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립니다. 소위 리우세계정상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150여 개국이 서명하였습니다. 1993년 12월에 협약이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심포지엄 이후로 수많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심포지엄들과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심포지엄들이 계속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점점 이런 내용에 익숙해지고, 또 공무원들, 관계부처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작은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제로 적절한 심포지엄을 열어서 이루어졌고, 저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글을 기고함으로써 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저희 선생님들, 선배 교수님들,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 특히 분류학 교수들이 고생과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각 방면의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의 결과 지금 여러 생물자원관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MAB 활동이 그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점을 모두가 꼭 알아야 합니다.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시발점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비해 불을 댕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중요합니다.

MAB 활동뿐 아니라 유네스코 활동이 결국 홍보하고 교육하는 국제 활동인 만큼,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였던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여러 심포지엄과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국민이 조금씩 알아갈 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IUCN도 있었는데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국제기구에 우리가 가입돼있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자연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물학은 전부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생명공학에만 관심이 있지, 자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한 사람한테 집중되다 보면 다 할 수 없을뿐더러 계속 이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겠지요.

IUCN한국위원회는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활성화하려면 관계부처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관계부처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무척추동물보전생물학』이라고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론에 제가 오죽했으면 “관계부처의 담당자들이 이 책의 목차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써놓았겠습니까?

MAB 활동에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면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잘하려면 생물권보전지역에 있는 생물 구성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당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어느 날 자연대 73학번 동기인 당시 이승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자연과학과장이 회의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유네스코가 연구비 지원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재원은 넉넉하지 않다. 그래도 연구비는 어떻게 내가 마련해 볼 테니까 데이터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동의하였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서 무척추동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담사 계곡부터 동해 바다까지 이르는 지역 여러 지점의 수서 무척추동물을 사계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산을 오르락내리락했는데 대부분 지금 조선대 윤성명 교수, 인더씨코리아 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사흥 박사와 함께 엄청나게 구보 훈련하듯이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분야는 당연히 수서 무척추동물입니다. 그런데 설악산은 산입니다. 수서 무척추동물은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그때 가톨릭대에 있던 73학번 동기생 조도순 교수를 제가 MAB한국위원회 위원에 추천해서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식물이 보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MAB한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MAB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느 일이나 힘들 텐데 당시에는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사명감으로 뚝뚝 뭉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MAB한국위원회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조도순 교수를 영입하였고 식물학 선배님이신 최청일 교수님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청일 교수님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회의 주재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십니다. 최청일 교수님 말고도 그 전에 김귀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서울대 농생대 김귀곤 선생님은 엄청 발이 넓으시고, 그 이후 들어온 농생대 김성일 교수는 언변이 좋고 영어도 잘하셨습니다.

당시 우리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때지만 계속 회의에서 주장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설립도 좋지만 결국은 생물권보전지역은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 관리가 잘되려면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잘 파악하고 반드시 전문 인력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결국, 전문 인력을 생물 종류별로 양성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MAB한국위원회를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MAB한국위원회는 원래 조사기관도 아니고 연구비를 주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MAB한국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로 관련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에서는 여러 관련 기관, 학계, 기타 NGO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아시다시피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은 생물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와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잘 모아서 관리하는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MAB한국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이런 가교 역할입니다. 그다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무엇보다 생물다양성을 다루는 국립공원공단을 포함한 국가 공공기관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MAB한국위원회가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또 하나는 각 지자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역할은 조사하는 것과 다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에 8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데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성에 맞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롤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롤모델을 만들면 결국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생물다양성을 다루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듯이 개발도상국도 우리가 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도상국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의 롤모델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MAB 활동에 분류학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전공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 했던 역할과 지금의 계통분류학 하는 사람들의 역할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생물권 구성요소는 분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류학이 구성요소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분류학과 생태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학은 크게 숲을 보는데 분류학은 숲을 보기 전에 우선 각각의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려면 먼저 각각의 나무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개

넘적인 차이에서 분류학과 생태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류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자기 고유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체가 되어 생물다양성 관련 생태학회, 조류학회, 미생물학회, 동물분류학회 등 다양한 분야를 묶어서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뒷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립생물자원관은 사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려다가 대신 비슷한 기능의 생물자원관을 만든 것인데, 작고하신 성균관대 최병래 교수님이 정말 제일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실질적인 설립에는 재정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가 해당 부처 장관의 의지인데, 그때 당시 환경부 장관을 설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최병래 교수님입니다. 아무쪼록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교수들, 특히 젊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MAB와 좋은 인연을 맺어가기를,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국가와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일단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으면 정년퇴임할 때까지 옳은 가치관을 갖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도 있었지만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MAB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1990년 9월입니다. 36세, 얼마나 젊었습니까.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지나온 길을 다시 또 그 나이의 젊은 연구자들이 잘 지켜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AB한국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청일

전 MAB 국제조정이사회 위원장



MAB 활동 시작

아마 1990년도 초인 것 같습니다. 1971년도에 MAB가 시작되고 MAB한국위원회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니 비교적 초창기부터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네스코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유학했을 때 제 전공이 생물해양학이었습니다. 그때 유네스코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나온 해양조사 매뉴얼을 많이 이용해서 유네스코와 친숙했습니다.

귀국 후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관여했습니다. 서울대 식물학과 이민재 교수님께서 협의회 회장으로 계셨는데,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학술위원을 하면서 자연보호와 생태적 측면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MAB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금 학술원 회원이신 한상복 서울대 명예교수님입니다. 서울대 문리대 선배이자 고등학교 선배이신데 당시 MAB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셨습니다. 내가 생태학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서 한번 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당시 은사였던 이민재, 홍수우 교수께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관여하고 계셨는데, 두 분을 통해서도 자연보전에 대한 국제적 활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과 동기로 MAB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1971년에 시작한 유네스코 MAB,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과정은 제가 관여하기 전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생물권보전지역의 1호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MAB 프로그램에 많은 기여와 관여를 하게 됐죠. 아시겠지만 MAB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설정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MAB 창설 시 14개 항목의 목표가 제정되었는데 그중에는 유전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1971년도에 유전자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전위적이고 대단히 앞서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CBD(생물다양성협약)에 보면 생물다양성의 세 단계 중에 유전자 다양성이 있는데 그때 이미 MAB가 유전자 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공정하게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생물권의 구성요소인 우리 인간의 참살이(Well-being)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서부터 그 대응을 시작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태계를 보전하고 또 그것을 발전·개발시키고, 이 두 가지를 지원하는 삼각형 고리 같은 체제가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71년에 시작된 MAB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구상된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런 기본적인 MAB의 여러 가지 목표가 진척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MAB한국위원회는 이러한 MAB 고유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MAB가 시작된 지 9년 후인 1980년에 MAB한국위원회가 설립되었고, MAB국제조정이사회(ICC)에서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이 2011년입니다. MAB 40년 되던 해에 우리가 의장국이 되어 MAB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MAB가 한국의 다양한 자연보호운동부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과학,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나아가는 데 MAB가 그동안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MAB는 ‘Man

and the Biosphere’ 즉 ‘인간과 생물권’입니다. 사람은 생물권의 하나의 구성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사람’을 앞에 두고 ‘and the Biosphere’라고 한 것은 그만큼 생물권에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간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생물권에서 인간이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타당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몇 가지 커다란 방향의 흐름이 있었죠. 1971년도에 시작되고, 1995년도에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규약(세비야 전략)이 채택되었고, 2008년에 마드리드행동계획에 이어서 2016년에 리마에서 리마행동계획이 채택되었지요. 지난 50년 동안에 MAB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그에 따라 우리 MAB 한국위원회도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MAB 국제협력 주도한 우리나라:

동북아 네트워크 설립 그리고 MAB 이사회 개최

우리나라가 주도한 MAB 국제 활동 중 대표적인 게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역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AfriMAB, 유럽과 북미의 EuroMAB 등이 있고, 아태지역은 넓고 다양하여 소지역으로 나뉘어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및 동남아의 SeaBRnet, 중앙아시아의 SACAM, 태평양의 PacMAB 등입니다.

한국은 EABRN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네트워크에 러시아가 없어서 참여케 하였는데, 러시아는 본래 EuroMAB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 시베리아 동쪽의 생물권보전지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EABRN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MAB러시아위원회 위원장인 Valery Neronov 박사와 상의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백두대간이 연결돼서 연해주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해주의 생물다양성 보전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카자흐스탄이 EABRN에 가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주 큰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이게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 국가가 되면서 아시아 네트워크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곳에는 특유의 초원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EABRN의 생태계 다양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MAB 국제조정이사회를 처음으로 제주도에 유치했습니다. 그동안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사회를 계속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선 첫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격년으로 회원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후에는 독일,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에선 2009년에 열린 이사회에서 신안다도해와 북한 묘향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어서 더욱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MAB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드레스덴선언과 녹색경제지원사업

제가 MAB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MAB 40년 되던 2011년입니다. 40년 동안에 MAB가 축적했던 것에서부터 미래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드레스덴선언입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MAB사무국과 의장으로서 제가 협의해서 특별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언의 부제는 “For Life, for the Future of the Biosphere Reserve and Climate Change”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을 준비해서 2011년 드레스덴 MAB 이사회에서 발표 후 채택되었고, 이어 유네스코 총회 의제로 보고되며 채택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어떻게 경감하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생물권보전지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대로 그리고 유네스코는 또 유네스코대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임무들을 이 드레스덴선언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에 관해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네스코 차원에서 우리 드레스덴선언을 잘 이행해나가야 하는데, 남남협력이나 남북협력 등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협력에도 유네스코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드레스덴선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즉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평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국 또는 3개국 이상이 함께 생물권보전지역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의장일 때 한 일 중의 하나는 ‘Green Economy in Biosphere Reserve’입니다. 줄여서 ‘GEBR’이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가나,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 세 나라의 생물권보전지역 녹

색경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세 나라가 다 풍부한 자연자원은 있지만 상당히 가난한 나라들인데, 여기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의장 임기 때 추진해서 실제로 KOICA 사업에 선정되어 시작하게 된 것은 2014년입니다. 사업은 현재 종료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생물권 보전지역의 리더로서 저개발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협력 창구인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또한 그동안 EABRN 활동에도 많이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건데, 본래 북한은 우리와 함께 EABRN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구상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실 유네스코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간접적이긴 하나, 다자간 협력이라 좀 수월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생태계 조사의 연구 사업으로 실제로 5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희귀종에 대한 조사를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하고 두 번째는 묘향산같이 북한에는 명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여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지원 사업입니다. 결국은 다섯 개 프로젝트 중 두 개만 완료되었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안타깝게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2000년도 초부터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자료 출판 등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 한반도 전체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생물권보전지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

과 효율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유네스코의 MAB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가 더욱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EABRN 활동의 기억들

2년에 한 번씩 EABRN 회의를 합니다. 모임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었고, 늘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EABRN 회의에 참여하면서 북한이 설립 멤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꼭 한번 EABRN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번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회의 개최 요청을 했는데 끝내 북한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EABRN 회의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개최할 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쉽고 지금도 북한에서 한다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그리고 오래전에 지정된 구월산에다 최근에 금강산까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보배로운 자산들입니다. 직접 보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북한 대표이신 김성곤 북한 MAB위원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느꼈고 인자하신 생물물리학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EABRN 회의를 할 때였는데 그때 2001년 뉴욕의 월드트레이드타워가 비행기 테러(9·11 테러)로 폭파되는 순간의 TV 중계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폭발 중계를 보고 깜짝 놀라셨던 게 기억납니다. “나는 저기 올라갔었다”라고 했더니 김성곤 박사께서 굉장히 놀라셨던 모습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과의 MAB 관계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백두대간을 통한 설악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그

리고 백두산까지 이렇게 일련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 쪽으로 북한과 협력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생태계 보전이 이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활동

제주도가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이 됐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지정됐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되고 나서 세계유산이 되고 또다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에 이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을 시작으로 유네스코의 보전지역 삼관왕이 되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감개무량해요.

제가 기억하는 또 하나는 ‘제주 이니셔티브(Jeju Initiative)’입니다. 이 제주 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 섬과 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연합체인데, 나중에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ICBRN)가 설립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서 주제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제주가 ‘기후변화’를 맡고 스페인의 메노르카가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을 맡아서 사무국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때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의 Han Qunli라는 담당자가 많이 애썼습니다. 그분은 중국인인데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좋은 제안을 해줬습니다. 또 유네스코 본부의 Miguel Clüsener-Godt가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두 분이 다 나중에 유네스코 MAB의 사무국장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협력했던 분들이 다 잘되는 그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물권보전지역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각 도에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DMZ 생물권보전지역(가칭, Korea DMZ Biosphere Reserve)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 신청했는데 유보됐습니다. 드레스덴선언에서 얘기했던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은 우리 MAB한국위원회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였던 프로젝트였는데 아쉽게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철원군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이 가운데서 잘렸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북한이 반대해서 유보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유네스코 대표부의 장기원 대사님과 제가 34개 MAB 이사국 대표부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는데도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 참 섭섭합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이 살아야 하고 백두대간에서 또 DMZ로 연결하고, 러시아로 연해주로 이어져 우리나라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꼭 지정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앞으로 DMZ가 생물권보전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2021년 MAB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는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유네스코 MAB에서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했던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MAB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래 MAB의 취지는 좋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데, 결국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디지털과 AI 기술을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물권보전지역이 더 많이 생기고 DMZ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하여 북한과 연결되고 나아가 연해주까지 연결되면 우리나라는 생태적으로 안정되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DMZ에서 생태통로(Eco-corridor)를 통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까지 한반도 생물다양성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처음 신청 준비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해당군들의 반대로 신청이 무산됐었습니다. 그게 너무 가까워서 다시 준비하여 해당 군을 설득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얻어 신청하게 되었고, 2010년에 지정되었습니다. DMZ는 인간의 간섭에서 배제되어 보호받고 있어서 생물다양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DMZ가 생태통로를 통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연결되면 광릉숲이 백두대간하고 연결되어 완전히 살아 있는 생물권보전지역이 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바깥에 광릉숲 같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섬과 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섬·연안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지식이라든지 AI 지식을 접목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전하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생물권보전지역, 섬이나 연안의 생물권보전지역에도 적용·발전시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국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소위 녹색경제 같은 것이 모두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야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인력이 뛰어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MAB 한국위원회가 있도록 활동을 계속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현재까지 잘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후학들을 잘 양성한다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도순

MAB한국위원회 위원장



김원 교수의 추천으로 MAB에 참여

처음 참여할 때는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을 잘 몰랐을 때였고, 김원 교수하고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일단 친구가 추천해줘서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왔을 때는 초기에 자연보전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서 유네스코가 나한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1982년에 설악산이 처음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2년 제주도가 두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기에, 한국 MAB 초기 20년은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하나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림생태학을 전공하였고 광릉숲 같은 곳을 자주 다니면서 생태계 연구를 하였기에 이런 연유로 해양 전문가였던 김원 교수가 설악산을 고려해서 육상생태계 전문가인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설악산, 점봉산 생태계 연구

MAB위원으로 활동할 초기에 김원 교수와 함께 1994년에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사업으로 설악산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설악산 남쪽에 있는 점봉산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의 이도원 교수님과 같이 생태계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 사업의 예산은 과기부로부터 받았으나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지소인 점봉산이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설악산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중에서 토양이 깊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장소라서 나한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 사업을 계기로 2004년부터 점봉산이 환경부의 장기생태모니터링 연구지소로 포함되었고 지금은 국립생태원의 중점생태연구

지소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점봉산에서 나온 보고서들에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된 점봉산에서 연구했다.”라고 적혀있지만 그게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봉산의 장기생태모니터링사업이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결되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과정

1995년에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이후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자연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심도 증대됐습니다. 그중 한 곳이 제주도였는데 2000년 경에 ‘제주도를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것인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MAB한국위원회 그리고 제주도 정부 사이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같은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니까 먼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유네스코의 여러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항상 공통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유네스코에서 도와주느냐?’, ‘지정되고 나면 규제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당시 4개 시·군(서귀포시·제주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있었는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 일반지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제 희망은 생물권보전지역이 한라산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바다까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해 부족과 반대로 천연기념물이었던 효돈천만 가는 머리카락과 같은 띠 모

양으로 한라산과 서귀포 앞바다를 연결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확장되어 본섬 및 부속섬 전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의 해양지역까지 다 포함된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MAB한국위원회에서 민통선 지역 조사

1996년과 1997년에 환경부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후보지 중의 몇 군데가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이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은 보전뿐 아니라 활용도 동시에 가능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지자체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당시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이었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로 철원, 대암산, 향로봉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비무장지대와 그 인근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계보전지역 후보지를 만들 때 거기에 경기도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비무장지대와 연계되는 시·군은 포천과 연천밖에 없거든요. 포천은 평지가 많아서 개발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았던 반면에 보전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고, 연천도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평야 지대로 과거에도 농작물 생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생물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었기에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새 보호지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철원이 두루리 월동지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철원은 두루미 때문에 그 당시 생태계보전지역 후보지로 올라간 거였고, 90년대에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이라고 다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관여하는 논농사는 두루미 보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실 철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철원은 향로봉과 대암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게 된 연유가 두루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원의 모델이 지금 연천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두루미가 연천에 월동하면서 두루미와 사람의 활동이 연계되어 연천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추진과 지역주민

철원은 과거에 태봉국 수도였고 이런 연유로 한반도의 수도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장소로 보기보다는 한반도 수도로서의 개발을 희망했던 주민들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반발이 다른 지역보다 강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빠지길 원했으나 비무장지대는 군사지역으로 개발이 안 되는 장소로 핵심구역으로 넣어도 된다고 하였고 반면에 비무장지대 외곽 지역은 완충구역이나 협력구역으로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서쪽의 파주시부터 연천군을 거쳐 동쪽의 고성군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곳에서는 구역 설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철원지역에는 핵심구역만 있고 완충구역과 협력구역이 완전히 빠져 있으니 이상한 모양새

가 나왔던 겁니다. 이런 사유로 2012년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유보 결정을 받게 된 근거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이름, ‘생물권보전지역’

영어로는 ‘Biosphere Reserve’가 이름이 좋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름이 좀 길고 발음하기도 좀 불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일본은 ‘Biosphere Reserve’를 ‘에코파크’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보전을 빼고 ‘생물권지역’이라고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권이라는 그 용어는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안에는 물리적 환경요인과 모든 생물이 들어있으며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MAB 프로그램과 뜻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름도 나쁘지 않고 글자 숫자도 줄어드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거부감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serve란 말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도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쓰는 ‘에코파크’는 한국어로 옮기면 ‘생태공원’인데 이는 너무 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물권지역’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이름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 변경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활동 시작

1994년 MAB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5년 EABRN이 시작될 때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지만 EABRN 창설 초기엔 그 의미를 잘 파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주도했던 두 분이 그때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근무하셨던 이시와 란 박사님과 중국의 한춘리였습니다. 두 분이 유네스코 직원으로서 네트워크 창설 절차와 의미를 잘 파악하였고, 회의를 그 두 분이 주도했습니다.

EABRN 출범 시 서울과 설악산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두 분이 작업하여 초안을 만든 EABRN 네트워크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EABRN 창설을 지원해주었고 그것을 계기로 근 30년 가까이 지금까지 환경부가 네트워크에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EABRN의 창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북한, 일본, 중국, 몽골의 5개국이 회원국이었는데 그 당시엔 소련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한 지 몇 년 안 되던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을 빼고 나머지 3개국은 사회주의국가였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기에 그런 나라들을 규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 같습니다. 그것이 유네스코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1994년에 중국의 Wolong과 Changbaishan(백두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2번 동북아시아 공동 비교연구사업 회의를 했었고, 서울과 설악산에서 있었던 1995년 5월 말의 회의가 세 번째 회의였는데, 이때 EABRN이 출범했기 때문에 서울-설악산 회의가 실제로는 첫 번째 EABRN 네트워크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출범 후 회원국 간 실제 공동 연구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첫 번째로 중국과 한국의 연구진이 같이 진행한 ‘장백산(백두산)의 생태관광에 대한 공동 연구 사업’에 한국에서는 김성일 교수의

제자인 강미희 박사가 참여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니다.

EABRN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라고 봅니다. EABRN이 자연보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환경부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

대부분의 EABRN 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지낸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회의에만 참석 안 했으니, 양국에서 개최된 회의 다섯 번을 제외하고는 북한도 나머지 10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1994년의 동북아 공동 비교 연구 사업까지 계산하면 EABRN에서 12번의 남북 공동 참가 회의가 있었던 셈이니 상당히 많이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형적인 북한 사람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패턴으로, 실제 전문가 1명, 국가공무원 1명, 행정직 1명이 참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네트워크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신뢰가 많이 쌓였고, 북한 측 내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지 나중에는 직접 생물권보전지역과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하게 됐고 초기에 비하면 많이 자연스러워진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의에서 남북한 참가자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북한을 이야기할 때 ‘북한’으로 불러왔고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불러왔습니다.

현재 국제적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의 ‘마브(MAB) 민족위원회’ 활동이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EABRN 네트워크 회의 때 북한분들을 만나면 마브 민족위원회가 국제적인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

아 연구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연구비 지원이 끊기게 되고 EABRN 훈련과정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북한 내에서도 MAB 활동이 관심을 덜 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IACBR)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대륙별로 2명씩 임명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MAB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 자문기구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죠. 실제로 MAB 프로그램의 최종의사결정 기구인 국제조정이사회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신규신청서나 정기보고서를 살펴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문위원회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와 정기보고서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내린 권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생물권보전지역 신규신청지의 지정 승인·유보·불허 결정 등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제자문위원 4년 임기를 채운 후 4년을 더 연임했는데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자문위원회 활동은 힘들기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번 2월경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데, 읽어야 할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와 정기보고서 분량이 상당합니다. 남들은 파리로 출장 가서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출장 가기에 앞서서 많은 자료를 읽고 분석해야 하고 때로는 파리에 도착해서도 밤늦게까지 의견을 정리하다 보면 한가할 틈이 거의 없고, 또한 시차도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를 많이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양식도 그동안

조금씩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신청서의 제일 뒷부분 Annex 1에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개요를 적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나중에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신청서를 쓸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최종보고서(Final Report)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학회지 편집 간사를 해 온 경력이 많아 편집을 잘 보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8년의 임기 중 6번을 보고관(Rapporteur)으로 활동했고 그중 2번은 보고관과 부의장을 함께 맡았습니다. 보고관은 때로는 100쪽이 넘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일일이 검토하고 특히 권고 사항 등 결정문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보고관으로 활동할 때는 자문 위원회의가 끝나서 귀국한 이후에도 최종보고서 초안을 교정하고 확인하는 등 상당한 일거리가 있는 편이었고 그런 만큼 보람도 큰 자리였습니다.

인력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네스코 MAB 사무국

아무래도 MAB 프로그램이 담당 인력이 줄어들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의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 업데이트라든지 인터넷에서 정보 공유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제조정이사회와 국제자문위원회도 미리 준비가 돼야 하는데 서둘러서 준비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이 2011년에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직후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2018년에는 정식으로 탈퇴하게 되었는데, 분담금 미납의 영향이 지금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정 위기 상황으

로 인한 활동 위축이 10년~20년 동안 똑같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타개책이 있어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MAB한국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던 위원들

같이 활동했던 민간인 전문가분들은 거의 다 기억이 납니다. 최청일 교수님, 김귀곤 교수님, 김원 교수님, 김성일 교수님이 기억납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였던 분은 한상복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시민사회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이셨던 박영숙 위원님, 이시재 교수님, 조경만 교수님 등이 계셨습니다. 조경만 교수님 다음으로 인류학 분야에서 유철인 교수님이 이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80~90년대 한상복 교수님 이후로 계속 인류학, 사회학 분야 전문가가 전통적으로 MAB 활동을 해 오고 계십니다. MAB 사업은 생태와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학제 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B에서 'M'이 사람을 뜻하니가 인류학, 사회학 분야도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분야의 위원님들이 활동해 오셨습니다.

국내 기관과 협력하여 MAB 활성화를

국립생태원과 MOU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생태계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점 지소가 점봉산과 한라산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안에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보전 연구가 활발한 한국생태

학회 등과도 MOU를 맺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MAB한국위원회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 소규모 연구비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문화다양성, 자연성지 또는 전통생태 지식 등은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공모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 MAB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연구원에게는 추후 전문분야의 직장을 갖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MAB 후속세대를 위해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IUCN 회의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었고 지금 MAB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른 교수들을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시킨 적이 있는데, 교수들 업무가 예전보다 너무 늘어나서 지금은 참여시키기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논문을 많이 못 쓰면 그야말로 학교에서 책임용을 못 받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말 꺼내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환경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MOU 체결은 쉽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는 예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젊은 교수들에게는 좀 더 큰 정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AB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기억들

곰곰 생각해 보면 제가 옛날부터 외국어 공부나 국제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특기가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인데, MAB 활동을 하면서 ‘내가 제2외국어를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웠던 프랑스어를 10여 년 전에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했고 간혹 학원도 다니면서 지금은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공용어라서 회의 때마다 스페인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나의 프랑스어 실력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6년 전부터는 학원에 다니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얼마 전 제32차 MAB국제조정이사회를 인터넷을 통한 화상 회의로 진행했는데 발언은 동시통역이 되지만 채팅창은 번역을 안 해줍니다. 저는 이번의 화상 회의에서 회의 중에 올라오는 채팅창의 메시지를 보면서 영어 외에도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해석이 거의 다 되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제는 없어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동시통역을 통하지 않고 발언들을 원어로 들었는데 회의 참석이 무척 편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는 DELF B1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스페인어는 아직 DELE A2의 초·중급 수준이라서 조만간 DELE B2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 저의 목표의 하나입니다.

제 전공이 군집생태학인데 결국은 자연보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대외적으로 자연보전의 원리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해 왔고 대학에서는 생태학,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강의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과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자연보전의 원리가 적용되

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전공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 MAB 활동이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아찔한 순간들

EABRN 설립 초기에는 북한 동료들을 만날 때 무척 긴장했고 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EABRN 회의가 있었는데 남북한 참가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면서 어느 날 북한 분들이 “저녁은 우리 대사관에서 먹읍시다.” 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몽골에서는 음식이 양고기 위주라 우리 식성에 안 맞아서 북한 측에서는 호의로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초청에 응했다가는 그다음 날 일간지에 “조 모 교수 북한으로 귀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겼지만, 만약 맛있는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거나 북한 음식은 어떤지 무척 궁금해서 북한대사관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초기에는 북한의 과학원 생물분원 원장이셨던 김성근 교수님이 항상 EABRN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김진실, 심숙경, 김은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꼭 안부를 물어보셨으며 그만큼 이분들의 능력, 전문성, 상냥함을 인정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남한에서는 비무장지대를 가장 자연보전이 잘된 최고의 자연지대로 생각하고 비무장지대에서는 북한과 비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또는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1990년대에 EABRN 회의에서 비

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에 대한 말을 꺼내면 북한 대표들이 회의 석상에서 영어로 샷대질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무장지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EABRN의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대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현재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생물권보전지역이 북한의 금강산, 남한의 강원과 연천, 이렇게 3개소가 있지만 모두 비무장지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DMZ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핵심구역으로 DMZ가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원생태평화·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내년이 MAB 프로그램 설립 50주년인데 이에 발맞추어 세계 산지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orld Mountain Biosphere Reserve Network)가 내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외국의 다른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와는 달리 연구 중심이 될 것이고 EABRN 회원국들의 생물권보전지역이 대부분 산지라 다양한 연계를 통해 공동연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악산, 강원생태평화, 금강산, 백두산을 백두대간의 생태축으로 올라가면 러시아까지 연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내의 각기 다른 생물권보전지역 사이에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공동비교연구사업이 진행된다면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크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가 UN 생물다양성 보전 10년(UN Decade on Biodiversity Conservation)이 끝나는 해이고 내년인 2021년부터 UN 생태계 복원 10년(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이 시작됩니다. MAB한국위원회 차원에서 생태계 복원도 잘 맞는 주제고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MAB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생태계 서비스가 많이 관련되는데 생태계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쉬운 방법이 생태계 복원입니다.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면 생태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서로 고민하여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이 시작되는 해에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성된 지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부근의 민통선 지역은 군사 활동으로 환경이 파괴된 곳이 많으며 통일이 되면 체계적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연천 생물권보전지역은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시범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고 복원 이후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서의 활용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활용된다면 선도적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AB 활동에 대한 기록과 앞으로의 활동

1980년에 MAB한국위원회가 출범하고 40년이 흐른 지금, 전에 활동하셨던 위원분들은 각자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오래된 자료를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터뷰를 위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5년에 유네스코의 4개 과학 프로그램 공동 세미나를 하면서 MAB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필요성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1990년대에는 김귀곤 교수님, 최청일 교수님이 EABRN 시작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및 국제조정이사회의 등에 관한 자료까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자료들을 한 번 모아서 디지털화 작업을 거친 후 저장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MAB 사업의 규모가 커졌지만 사실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MAB 사업을 주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들이 좀 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홍보가 현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고 오래 남을 수 있는 책자들을 발간하여 현재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와 균형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찾아가서 듣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MAB 활동 이야기

초판 1쇄 인쇄 2020년 12월 16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22일

기획 MAB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집 김은영 양성우 최연수

펴낸이 현병관

펴낸곳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

전자우편 vitya@knps.or.kr

홈페이지 www.unescomab.or.kr

제작 (협)은빛기획

ISBN 979-11-87232-26-1(93470)

이 책은 MAB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2020년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입니다.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MAB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MAB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때에는 유네스코(UNESCO Open Access Repository)(<http://en.unesco.org/open-access>)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MAB한국위원회 사무국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전화: 033-769-9300

홈페이지: www.unescomab.or.kr

전자우편: mab@knps.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홈페이지: www.unesco.or.kr

전자우편: online@unesco.or.kr

비매품



9 791187 232261
ISBN 979-11-87232-26-1